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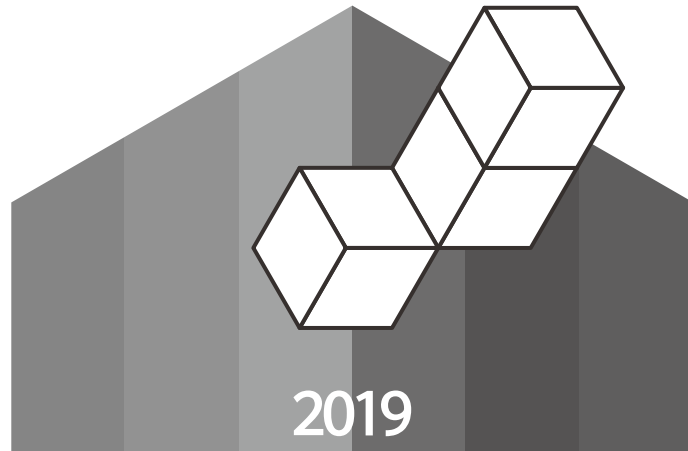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은...?

“당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당당한 주체로서 폭넓게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층 심화된 교육과정”

“2020년 총선 승리의 마중물”

“여성당원 전문과정은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능동적인 정당 활동의 참여를 통해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정치프로그램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발전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부의 신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여성 법무부장관·여성 대법관·여성 헌법재판관을 배출한 것이 바로 민주정부입니다. 호주제 폐지,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 여성 공천 등 성평등의 가치를 정립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여성당원 전문과정은 2020 총선을 앞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당원들이
상호소통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당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주체적인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

“기존의 당원교육과는 다르게,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열린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알찬 시간”

(인사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대한민국의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선택한 여성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강한 민주주의’는 남성들만의 힘으로, 혹은 소수 여성들의 참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성후보 30% 공천 달성은 물론, 당내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당원들이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 당을 상상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여성주권자들과 함께 하는 지역 여성위원회를, 여성당원의 힘으로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상합니다.” (환영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 취지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여성당원 역량강화와 대표성 확대
- 2020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성당원 역량 강화

● 개요

- 1일 7시간, 2일 과정 집중 워크숍
- 여성당원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공유
- 대상: 더불어민주당 여성핵심당원

● 진행: 여성리더십센터 전문과정 운영 TF

- 소장: 김은경
- 부소장: 김정선 문명순 장숙이 송순효 정석자 한운옥 허소영 황재은
- 운영위원: 김미선 노경숙 박준하 조용미 최주영 홍성희
- 외부 전문가: 이선민 박사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신명 사무총장(한국여성의정)
권수현 박사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부대표)

449명의 참가자

강분애 강혜자 곽순란 김미화 김연정 김운자 김창희 김현실 김혜림 남현희 문영애
박영주 박인숙 배기정 배심교 백선옥 배윤주 송민선 심경숙 심명주 양성진 여애경
오은옥 윤경아 이금순 이문순 이성숙 이수정 이원주 이종화 장순연 조정희 최미곤
최진향 최희정 하성자 한은정 황재은 황경아 남호현 최순례 우미라 마영희 나소란
음선희 김진숙 오경옥 정명자 명진 이현주 윤인지 문인숙 안해영 백경애 김경미
김혜경 임형숙 문희정 최경란 이숙희 박진희 김미성 김해란 김귀성 이수임 이정심
이영자 이복엽 김명옥 권금자 양명자 박남순 김행자 김선화 박선우영 이숙희 장성심
양종숙 김미숙 임순덕 김성화 박윤아 천신애 고영임 이귀순 권순옥 권해숙 김귀화
김성규 김성희 김영미 김영애 김정미 김정희 김종련 김지원 김혜승 박정희 서은미
신수진 안선미 유금자 육정미 윤미경 이다겸 이미경 이지연 이효야 임덕자 임미연
장영희 전희정 정복순 정숙경 정은숙 정정남 정종숙 차우미 홍복조 황혜진 강부송
이경란 전명자 김송환 조영숙 오탈옥 신혜영 박재숙 신명희 이효만 한수완 윤원옥
정옥진 류홍숙 인미동 최남희 김정미 박문이 서다운 김빛나 손도선 김남숙 정경수
류종희 이나영 가연주 김영미 김정희 박혜련 정경자 강도희 강명희 강윤경 공기순
구현정 권성하 김진 김미경 김미란 김미희 김민정 김선미 김지원 김지은 김진홍
김향남 김혜경 김희재 남소미 문현신 박경옥 박구슬 박혜자 배은주 소수련 오미선
원영숙 유명희 유성미 유양선 이나건 이영란 이정향 이지영 이창숙 임정숙 임지은
전전미 정다경 정춘희 정현진 정홍숙 주순희 진보라 최영희 최은영 추윤선 강부덕
구진영 김남숙 김미주 김미화 김송희 김옥분 김은미 김재숙 김진경 김현주 김혜순
김효림 나유경 남연희 노연우 박다미 박성경 박옥선 박종미 박현아 박희자 송인숙
신은숙 안양식 양용이 유강녀 유부덕 윤정자 이동매 이명옥 이미옥 이미자 이정미

이충숙 이화순 이희정 장경희 장정순 정명숙 정순희 정영희 정춘자 정해숙 조현선
 진선미 차세화 최성례 최재란 최희전 황주영 강명희 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문지은
 박란희 박애영 박영설 방경호 백인영 백정애 손영희 손현옥 송상희 송서운 오영희
 이경숙 이순열 이영세 이영희 이정희 이찬희 임향미 장래정 정준이 천영옥 최양남
 홍만희 홍명자 김현미 박영송 박종현 임복자 김명숙 김현숙 손경희 강 희 고인숙
 김경미 김경임 김농선 김미경 김수정 김수정 김양희 김연심 김영란 김옥정 김은숙
 김인순 김정숙 김종숙 김현옥 김혜숙 김화신 노영미 박말례 박미옥 박옥희 박은서
 박태진 박현숙 서순주 서연희 서희정 손정희 신경심 심임순 안명희 양숙자 유애경
 윤영랑 이동복 이연숙 이형선 장경순 장은영 정경임 정미희 정선희 조난영 조미라
 조영미 지 민 지차남 최미숙 최옥경 하혜순 허정임 강경숙 강은희 고남숙 고미정
 국주영은 권정숙 김명숙 김미란 김선자 김영자 김은주 김이재 나금례 문은영 문인순
 박노자 박문화 박영자 박윤정 박희자 서난이 서연숙 송미라 송미숙 송영숙 송정이
 송정임 송준신 신영자 신정이 용화숙 이경신 이경애 이계순 이기자 이남숙 이남희
 이미선 이미숙 이보순 이선재 이용님 이윤자 이인숙 이정자 이해양 장은아 전선자
 정명례 정섬길 정옥주 정점순 조은영 한명숙 허경복 홍혜경 황혜숙 한희경 오임선
 윤영숙 손경숙 문영희 박선희 이휘나 김소정 김정림 강민숙 김경미 강성의 고매향
 김양은 고명순 이봉학 라정임 박소연 오옥만 김영주 양신순 수영미 정애숙 김영심
 김현수 이형주 이진희 이정민 이은주 이채환 김진영 김수안 고인자 문정열 오복만
 김진실 안숙자 박미숙 고태순 이승아 김명숙 김복자 김아진 김연옥 김은하 김정선
 엄소영 이기희 이양미 이영화 이진희 정숙자 차미숙 최선경 임향미



○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진행 일정

- 총 12개 시·도당, 11회 교육 완료

- 참가: 449명
- 수료: 322명

시·도당	일자	장소
대구·경북	03.29.(금)~03.30.(토)	엑스코
대전시당	04.08.(월)~04.09.(화)	예람인재교육원
충남도당	04.19.(금)~04.20.(토)	천안축구센터
경남도당	04.23.(화)~04.24.(수)	경남도당 사무실
전북도당	05.27.(월)~05.28.(화)	전주 한성호텔
부산시당	05.31.(금)~06.01.(토)	부산시당 사무실
전남도당	06.04.(화)~06.05.(수)	전남도당 대회의실
광주시당	06.12.(수)~06.13.(목)	광주시당 희망카페
세종시당	06.19.(수)~06.20.(목)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
제주도당	06.25.(화)~06.26.(수)	오드리인 호텔
서울시당	07.03.(수)~07.04.(목)	중앙당사 2층 회의실

※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안내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 목적


- 여성당원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프로그램 공유
- 2020년 총선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여성당원 역량강화

| 개요

- 2일간, 14시간 집중교육
- 대상: 더불어민주당 여성핵심당원

| 일정안 진행: 김은경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외 교육운영 TF

지역	일정	장소
대구·경북	3. 29(금) ~ 30(토)	엑스코
대전시당	4. 08(월) ~ 09(화)	예람인재교육원
충남도당	4. 19(금) ~ 20(토)	천안축구센터
경남도당	4. 23(화) ~ 24(수)	경남도당 사무실
강원도당	5. 09(목) ~ 10(금)	원주 인터블고 호텔
울산시당	5. 23(목) ~ 24(금)	울산시당 회의실
전북도당	5. 27(월) ~ 28(화)	전주 한성호텔
부산시당	5. 31(금) ~ 6.1(토)	부산시당 사무실
전남도당	6. 04(화) ~ 05(수)	전남도당 대회의실



더불어
민주당

주 회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 3월 29일~30일 대구시당·경상북도당 여성위원회 주관 제1차 교육 안내문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참가자 모집

2020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성당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 상 | 더불어민주당 여성핵심당원 (선착순 50명)

교육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 30일(토) 오전10시~오후7시

교육장 | 엑스코 신관 3층 320A홀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접수방법 | 구글폼을 통한 사전접수 (<https://goo.gl/kCgXgX>)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2만원 (현장 납부)

문의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053-217-0700)

■ 프로그램 안 | 진행 : 김은경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외 교육운영팀

일차	시간	프로그램
3월 29일 금요일	10:00-10:30	등록 및 개회식
	10:30-12:00	만나서 반갑습니다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30	더불어민주당원, 나는 누구인가?
	14:30-16:00	선택, 더불어민주당
	16:00-16:30	휴식
	16:30-17:30	당헌 당규 분석과 이해
	17:30-19:00	성평등이 민주주의다
3월 30일 토요일	10:00-11:30	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
	11:30-12:30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
	12:30-13:30	점심 식사
	13:30-15:00	정당의 여성조직과 역할
	15:00-16:30	여성정치리더십
	16:30-17:00	휴식
	17:00-18:30	여성, 정치 앞으로!
	18:30-19:00	폐회식



**더불어
민주당**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주 관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경상북도당 여성위원회

○ 대구시당·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김성규 김성희 김영애 김정희 윤미경 이다겸 이효야 임미연 정종숙
김혜승 안선미 유금자 김영미 이지연 임덕자 장영희 전희정 정복순
정숙경 정은숙 이경란

○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전명자 신혜영 박재숙 신명희 한수완 윤원옥 정옥진 류홍숙 인미동
최남희 박문이 정경수 이나영 가연주 박혜련 정경자

○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임향미 김명숙

○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곽순란 김미화 김연정 김현실 남현희 박영주 배심교 백선옥 송민선
심경숙 심명주 양성진 여애경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하성자 한은정

○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강경숙 고남숙 고미정 김명숙 김미란 김선자 김영자 김은주 김이재
나금례 문은영 문인순 박노자 박문화 박영자 박윤정 서연숙 송미라
송미숙 송준신 신영자 신정미 용화숙 이경신 이계순 이기자 이남숙
이미선 이미숙 이보순 이선재 이용님 이윤자 이인숙 이정자 이해양
장은아 전선자 정명례 정섬길 정옥주 정점순 조은영 한명숙 홍혜경
한희경 오임선 윤영숙

○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강도희 강명희 강윤경 공기순 구현정 권성하 김 진 김미경 김미란
김미희 김민정 김선미 김지원 김지은 김진홍 김향남 김혜경 김희재
남소미 문현신 박경옥 박구슬 박혜자 배은주 소수련 오미선 원영숙
유성미 유양선 이나견 이영란 이정향 이지영 이창숙 임정숙 임지은
전전미 정춘희 주순희 진보라 최영희 최은영 추윤선

○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강 희 고인숙 김경임 김농선 김미경 김수정 김양희 김연심 김영란
김은숙 김인순 김정숙 김종숙 김현옥 김혜숙 김화신 박말례 박미옥
박옥희 박은서 박현숙 서순주 서연희 손정희 심임순 양숙자 유애경
윤앵랑 이동복 이연숙 장경순 정미희 정선희 조난영 조미라 조영미
지 민 지차남 최옥경 하혜순 허정임

○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최순례 우미라 마영희 나소란 음선희 김진숙 명진 이현주 윤인지
문인숙 안해영 백경애 김혜경 임형숙 최경란 이숙희 박진희 김해란
김귀성 이정심 이영자 이복엽 김명옥 권금자 양명자 박남순 김행자
김선화 박선우영

○ 세종시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강명희 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문지은 박란희 박애영 박영설 방경호
백인영 백정애 손영희 손현옥 송상희 송서윤 오영희 이경숙 이순열
이영세 이영희 이정희 이찬희 장래정 정준이 천영옥 최양님 홍만희
홍명자

○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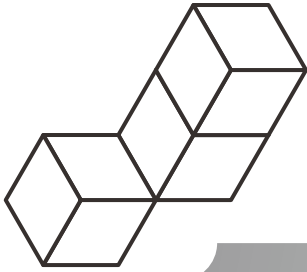


수료자: 손경숙 문영희 박선희 김소정 강민숙 김경미 강성의 고매향 김양은
라정임 박소연 수영미 정애숙 김영심 김현수 이형주 이진희 이정민
이은주 이채환 김진영 김수안 고인자 오복만 김진실 안숙자 고태순
이승아

○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료자: 강부덕 구진영 김남숙 김미주 김미화 김송희 김옥분 김은미 김재숙
김진경 김혜순 호 림 나유경 남연희 노연우 박다미 박성경 박옥선
박종미 박현아 박희자 송인숙 신은숙 안양식 양용이 유부덕 이동매
이명옥 이미옥 이미자 이정미 이충숙 이화순 이희정 장경희 장정순
정명숙 정순희 정영희 정춘자 정해숙 조현선 진선미 차세화 최성례
최재란 최희전 황주영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운영TF’ 구성과
‘준비 워크숍’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준비 워크숍'

- 일시: 2019. 3. 23. 토요일 9:00~21:00
- 장소: 여의도 중앙당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김은경, 김정선, 송순효, 장숙이, 정석자, 한운옥, 허소영, 김미선, 노경숙, 박준하, 장준하, 정현진, 조용미, 최주영, 홍성희, 권향엽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단을 중심으로 과정운영 TF 를 구성하여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사전 준비 워크숍 진행. 전체 내용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한 후 전국 12개 지역위원회 전문과정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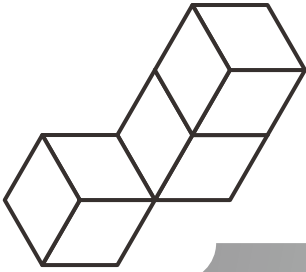




전문 과정 준비물

- 참여자 중심의 교수 학습 과정을 위한 준비물
 - brainwriting (생각쓰기) 카드; 가독성을 높이는 다양한 색깔의 카드
 - 유성펜 (참가자 수 만큼), 포스트잇, 전지, 풀, 가위, 스카치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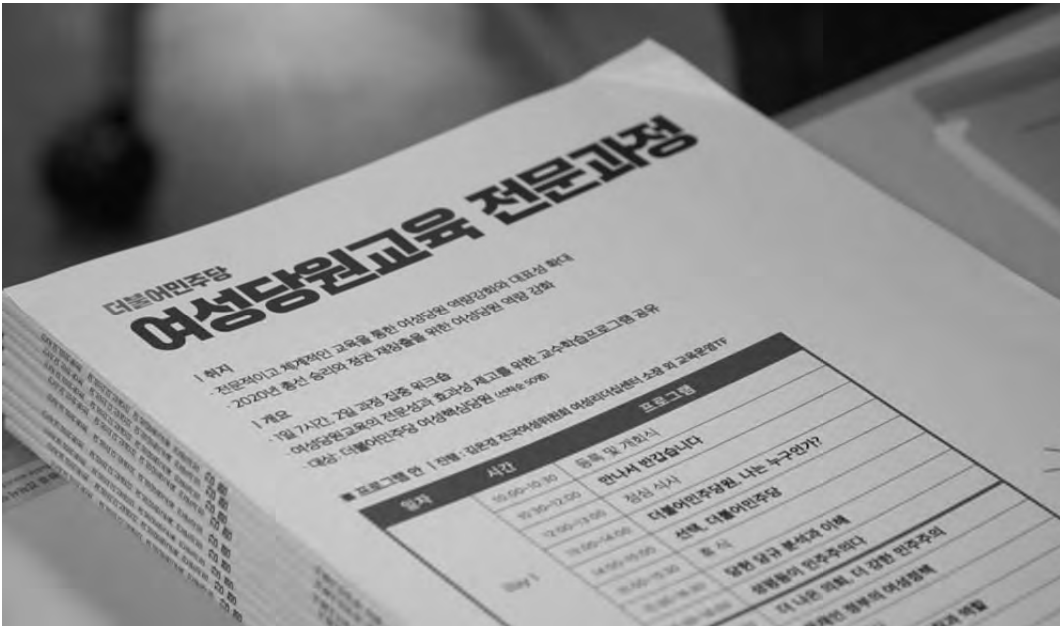


자세한 교육 내용이 담긴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교재는
과정 전후 모든 참가자에게 파일로 공유하였으며,
필요하신 분은 여성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전문과정 주요내용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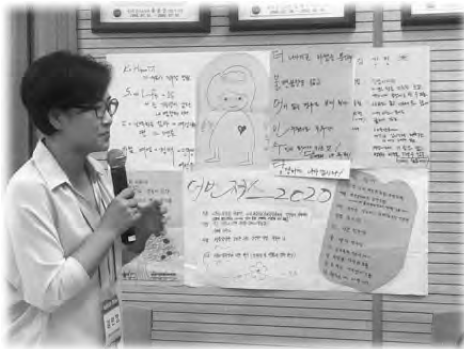
module 1. 우리는 누구인가?

■ 토론 및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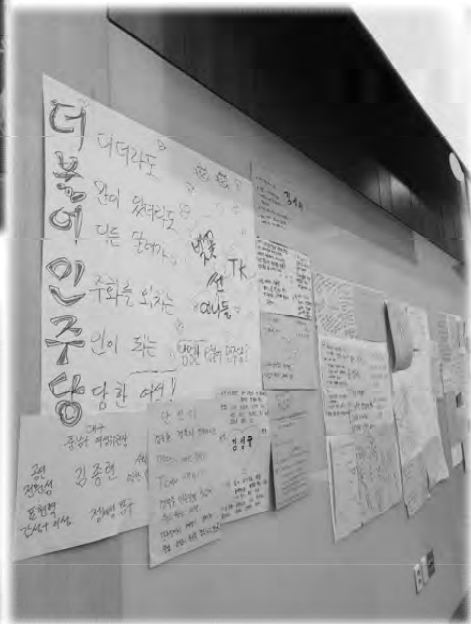
- 당에서의 역할, 자신의 장점, 당원으로서의 비전, 전문과정에 대한 바람 등을 담은 자기 소개
-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핵심당원, 신입당원 등 당원 경력 30년에서 1일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 여성당원 간 긴밀한 네트워킹 형성
- 60년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한 여성당원의 활약상과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여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



참가자의 '자기 소개'와 '더불어민주당으로 6행시' 짓기



팀명: '우리는 어벤져스2020'
/ '나대자' / '그대는 바람' ...



'더불어민주당'으로 6행사:

더디더라도 / **불**만이 있더라도 / **어**디든 달려가 / **민**주회를 외치는 / **주**인이 되는 / **당**당한 여성!



■ 기대효과

- 여성당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 공유, 상호 교류의 기회를 만든다.
- 당내 여성당원의 역할과 기여, 성과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통해 당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 함께 하는 여성당원들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한다.

※ 핵심어: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 여성과 정당 활동, 당원간 네트워크, 만남

module 2. 나는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이다.

■ 토론 및 학습 내용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적 가치들은 무엇인가? 당의 정강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은 무엇인가? 현재 민주당이 추구하는 시대가치는 무엇인가? 당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한다. 참가자들간의 토의를 통하여 당의 핵심가치를 규명하고 내재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동료 당원들과 함께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나누며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한 시간





■ 기대효과

- 가치의 명료화를 통해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구성원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
- 정당의 당원으로 개인의 가치와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에 관한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진성 당원으로서의 기본을 익힌다.
- 주요 정당의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소속 정당의 정체성 인식은 물론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 핵심어: 당원의 자질, 가치와 비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정당별 정책 비교 분석, 당 정체성 인식

■ 핵심 체크

☞ 민주여성당원, 우리의 가치: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

우리는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포용적

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천재지변을 포함, 범죄와 재난·사고, 환경문제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극복해 나간다.

넷째,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새롭게 변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건강한 기업이 정신의 고양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적극 육성·지원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한다.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 간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강령 중에서

우리의 가치

- 1) 생태는 지속가능성이다
- 2) 자율이 자유를 실현한다
- 3) 정의는 계속된다
- 4) 민주주의가 기초다
- 5) 우리의 세계방향성의 표현: 인권과 비폭력

- 독일 녹색당 강령 중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현실적인 평등을 추구한다. 좌우 평등, 수입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남녀사이의 평등이 없는 자유로운 인간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페미니즘이다.

우리는 진보를 믿는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한다.

우리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월성을 선언한다.

우리는 공동체 에너지를 지닌다.

- 프랑스 사회당 강령 중에서

module 3. 더불어민주당,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 토론 및 학습 내용

- 나는 어디에서 '불편함' (문제의식, 책임감, 소명의식)을 느끼는가? 지금 한국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 당은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는가? 다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누가 할 것인가? 나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 “다름이란 언어의 다름이고, 행동의 다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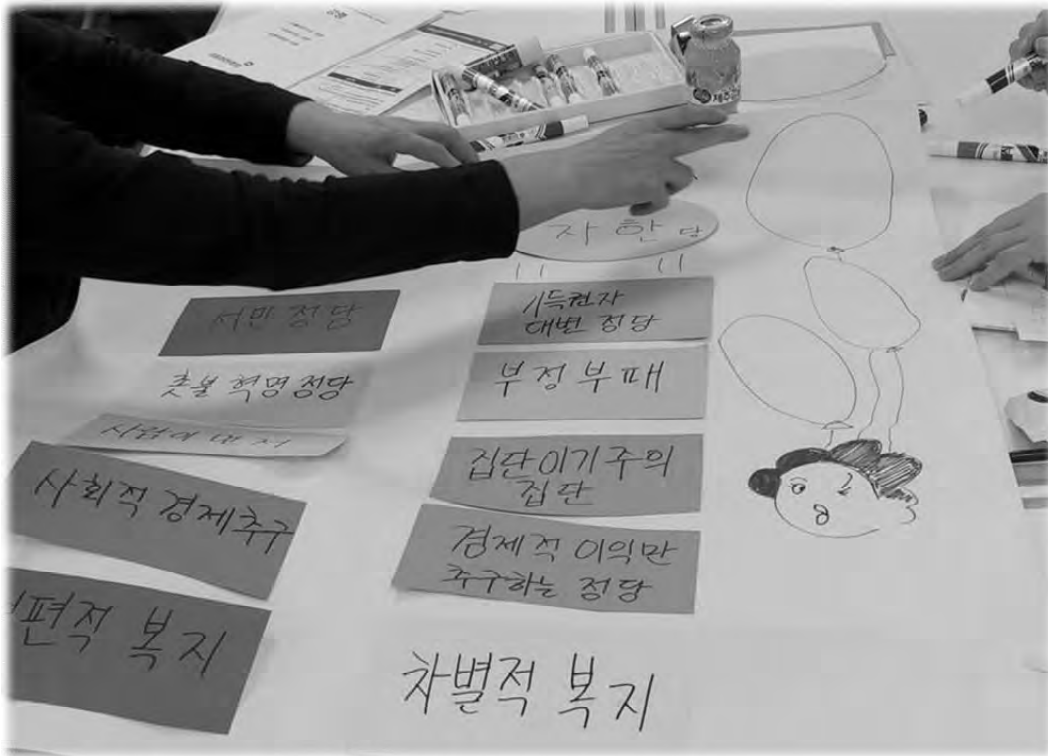
- 우리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것 / 그들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타당의 정강정책 분석



개인 작업 후 의견을 모아 정리하여 발표







■ 기대효과

- 당의 정강 정책을 해부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 유권자와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 비전, 정체성, 정책 등 당원으로서 우리 당을 '대변'할 수 있다.
- 핵심 당원에게 필요한 설득력을 기른다.

※ 핵심어: 주요 정당의 정강 정책, 여당과 야당, 정책 분석

module 4.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당

■ 토론 및 학습 내용

민주적인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정당 운영과 관련하여 비민주적인 조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정당, '민주적'이고 '성평등'한가? 당헌 당규는 당원의 평등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정당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1.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당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2. 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도록 기여하는 여성당원이 된다.

※ 핵심어: 성인지 의회와 정당, 정당의 성주류화, 성평등과 민주주의

■ 핵심 체크

☞ 성인지의회란?

성 평등 원칙 즉 의회의 조직 및 과정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의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방법 및 활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이해와 욕구에 반응하는 의회

- 모든 의회 및 의회 내부 조직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수에 있어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는 의회
- 각 국가의 의회 상황에 적합한 성 평등 정책 틀을 개발하는 의회
- 의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성 평등을 주류화 하는 의회
-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남녀의원들의 욕구와 현실에 부응하여 일가정의 책임을 양립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의회
- 남성의원들이 성 평등을 추진하고 옹호하도록 그들의 기여를 이끌어내고 인정하는 의회
- 정당들이 성 평등의 촉진과 달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하는 의회
- 의회직원들이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갖추도록 하고, 여성들이 상급직으로 활발하게 충원되고 유지할수있도록 하고 성평등이 의회 행정 및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주류화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회

☞ 성인지정당과 정당의 성주류화

정당은 남성과 여성이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적 의제를 개발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정당정책이 여성관련 의제설정 및 법률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성인지적 의회를 통한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이 얼마나 성인지적 인지 파악하기 위해 IPU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토대로 자체 평가와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1. 정당이 성인지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현재 의회에 진출한 정당이 성인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2. 여성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늘어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정당의 통치 구조에서 여성할당이 적용되고 있는가?
3. 회의 시간, 내규, 리더십 지위로의 접근 등 정당의 활동 방식과 실천 등이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이 제시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4. 정당은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가? 정당 내 여성대표 혹은 성평등 워킹 그룹 또는 위원회등이 있는가?
5. 정당의 정강 정책에서 성평등 이슈는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가?
6.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성평등에 관한 당차원의 기여와 정책등을 생산하고 소통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7. 정당 대표들이 성고정 관념을 표출하는가? 그럴 경우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가?
8. 원내 정당이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제안하는가?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참가자 한 마디

☞ 첫날 과정을 마치고, 함께 한 소감을 여쭙었습니다.....

도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권력 함께해서 강하다
 준비하는 여성이 되자
 자신감
 진실은 알아야 힘이다.

말하는 토론
 조직 강화
 보람 있는 하루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역량강화
 희망이 보인다.



교육의 중요성

여성의 힘, 교육이다.
의지가 샘 솟는다. 행복

역동성 있는 여성 당원이 됩시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닌
논리로 준비, 더 잘할 것이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갈 길이 멀다. 실천

보람 힘들지만 당당하게
 여성의 꿈을 펼쳐자
 할 일이 많다.



module 5. 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

■ 토론 및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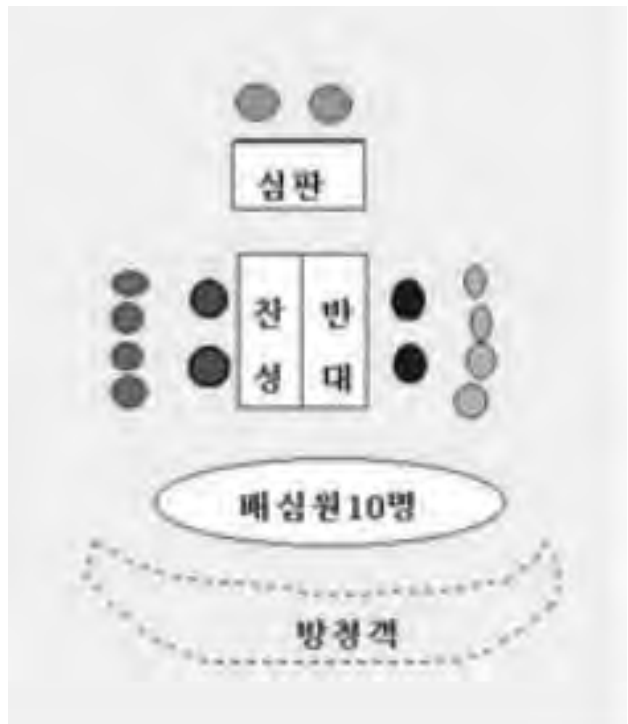
- 한국사회의 위기가 남성의 과잉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당제와 남녀동수는 어떻게 다른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둘러싼 저항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에 남녀동등한 참여’를 주제로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실습 (터부 토론)

-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판결하는 방식 (법정심판식 배심토론 또는 터부토론)

■ 진행방법

- ① 찬성 팀, 반대 팀, 배심원단 구성 (각 팀은 주 발언, 보조발언으로 구성)
 - ② 논거 개발
 - ③ 찬반 토론
 - ④ 토론 중 숙의시간
 - ⑤ 찬성 반대 각각 최후 주장 후 배심원 판결
 - ⑥ 참가자 소감과 총평
- ※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터부단어, 발언시간 등을 설정



찬성과 반대는
제비 뽑기로 정한다.



역할 분담: 찬성측 토론자, 반대측 토론자, 배심원, 언론 기자



배심원장의 토론 규칙 발표:

1회 발언시간, 숙의시간, 발언자 교체 여부와 횟수, 평가 기준, 터부 단어 등



찬성측 토론



반대측 토론



토론 중 속의 시간



☞ 토론 실습 후 돌아가며 소감 나눔과 총평의 시간



“할당제, 동수 심판이 너무 개입하는, 부정적 시각 많았는데 잘못된 경기의 룰을 바꾸는 것이라고 깨달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더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기회 처음인데, 가슴에 와 닿는 토론을 했다. 정치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틀간의 교육에 감사”

“마이크 잡으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음. 보고 듣고 배우고 간다”

“어제 밤에 조사하고 올 걸 엄청 후회. 논리로 토론, 2% 아쉬움, 마이크 잡을 기회 많지 않는데 민주당이기에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 이런 과정을 통해 리더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

“정치의 장에서 싸우면서 위축됨을 느낌. 여성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축된다는 것은 그 만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 토론이 답이다”



“오늘 반대측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다음에는 찬성 측에서 해보고 싶다”

“여성30% 당연한 것인데, 토론하며 힘이 많이 없음을 느낌. 더 많은 여성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힘을 키워야겠다”

“여성위원회가 여성들을 돕는 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기대효과

- 남성의 과다대표와 여성의 과소대표로 특징 지워지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와 더불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할당제를 넘어 남녀동등한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이른바 동수민주주의 Parity Democracy 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동수정치운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정치를 기획하는 기회를 갖는다.



- 동수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실행 가능성과 예상되는 도전과 대안 등을 모색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와 ‘남녀동수’의 차이를 이해한다.

※ 핵심어: 할당제와 남녀동수, 남녀동등한 정치참여, 남녀동수민주주의의 Parity Democracy,

■ 핵심 체크

※ 동수입법과 할당제, 그리고 논쟁들

남녀동수입법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이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할당제’와 다른 점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나누기 할당은 한 가지 가능한 수단에 불과. 시민성, 보편적 평등, 정치체제를 보다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 등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2	지배-피지배 틀 안의 소수. 여성을 소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은 소수일수 없다.
3	선출된 대표들의 일하는 조건을 바꾸고, 성역할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여성에게 덜 우호적인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 동수민주주의의 4가지 논거

성평등 이슈가 어떤 정치적 논의의 틀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논쟁들이 다양한 정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논의될 수 있다.

- 평등과 정의에 대한
- 민주주의에 대한
- 여성정치인의 증가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 여성의 이해관계에 대한

1. 남녀 평등한 참여는 남녀 사이의 정의의 문제이다.

참정권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회원국은 그들 스스로 국제사회, 유럽차원, 개별국가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약속한 바 있다.

2. 남녀의 평등한 참여는 근대 민주주의의 얼굴이다.

여성의 과소대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다. 의회는 인구의 반인 여성의 참여가 없는 평등하게 대표되지 않는 한 구성원들의 의견, 관점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것이다.

3. 평등한 대의는 정책결정의 질을 높인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맞는, 결과적으로 정책전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양성의 포함은 적합한 의사결정과 공적 자원의 배분으로 이끈다. 여성의 평등한 참여는 새롭고,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의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분야의 여성의 참여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갈등해결로 이끌어 줄 것이다.

4. 여성의 이해와 관점을 더욱 잘 대변할 것이다.

신체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성적인, 재생산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폭력 등, 같은 방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남성들과는 다르게 여성들은 공통의 요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의 젠더화된 부분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이해는 충돌할 수 있다. 스웨덴의 사례가 증명하듯, 여성의원의 증가는 의회의 의제를 바꾸어 놓는다. 많은 여성들이 성평등은 물론 돌봄과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등한 참여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스웨덴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기존의 생각 또는 반대 논리

→ 동수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유권자와 대표는 성, 계급, 인종 등 모든 사회적 특성들로부터 자유롭다는 ‘보편성’은 여성의 배제에 기초한 정의일 뿐, 보편적 시민성은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지배적인 사회집단의 목적에 사용된 제한적 개념에 불과하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생활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종류의 문제들, 요구, 이해를 가진다. 이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옹호하는, 그래서 결국 불평등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주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동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제한적 개념화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동수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의 한계를 들추어내서 평등의 민주적 원칙의 범위를 넓히고 보편성의 틀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 동수민주주의는 자유의 원리를 침해한다?

자발적인 자율경쟁을 선호하는 자유경쟁 원칙하에 동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성평등 분야에서의 자연스러운 진보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점철된 지난 세기들을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권한을 원하는 여성들은 수많은 구조적, 문화적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수 입법은 남녀를 위한 평등한 출발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부정의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더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주체이다. 앞으로 또 다른 세기들을 기다리는 대신, 시민들은

반드시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어야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추가적이고 결정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유는 수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누구의 자유가 실제로 보호되는지 살펴야 한다. 자유는 종종 평등과 모순되기도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민주적 가치의 갈등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 우리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인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 프랑스의 남녀 동수 내각.

국가적 차원의 대논쟁을 거쳐 정착된 동수법으로 프랑스의 지방의회는 남녀 반반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수내각까지 현실화됨으로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남녀가 함께 결정하고 있다.



2012~2017 프랑스 프랑소와 올랑드 정부의 남녀 동수 내각



2017~2022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남녀 동수 내각

※ 상자 안의 내용을 읽고 소감을 나누었다.

우리는 A 국가인가? B 국가인가? C 국가인가?



“여신이 주최한 경기”

만약 우리가 경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게임 내에서 하자.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9. 78p.

아주 옛날 여신들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일종의 게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경기는 일정한 거리를 정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주가 아니라 국가가 한 팀을 이루어 모든 구성원들이 결승점까지 빨리 도달하는가를 측정하는 게임이었다.

마침내 출발 총성이 울렸을 때 A 라는 국가는 그 경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능한 빨리 달리라고 독려했다. 모든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빨리 달리고 있던 사람들 중의 그 누구도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앞서서 달리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경주가 계속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지치거나 부상당하고 길가에 쓰러졌다. 달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아프거나 기진맥진해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대신해 달릴 수는 없었다. 이 국가가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제 모든 관심은 A 국가와는 약간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B 국가에게로 집중되었다. 이 국가는 일단 모든 청년들은 앞서서 달리도록 하고 모든 여성들은 아이들과 환자와 노인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뒤에서 달리도록 하였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작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성들에게 설명했다. 지도자들은 남자들이 더욱 빨리 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보다 우월한 권위를 주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인 듯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은 만약 그들이 약자를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면 남자들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 - 달리면서 약자들을 돕는 일- 이 달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동일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국가는 교섭과 협상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가 경주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이제 관심은 세 번째 국가인 C에게로 쏠렸다. 이 국가는 점진적인 전진을 통해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국가의 모든 주자들은 달리는 동시에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요청받았다. 한편으로는 빨리 달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자를 보살피는데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규칙에 합의한 후 사람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집단적 책임감에 균형을 맞추면서 그들 스스로의 속도를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통해서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경주에서 승리한 국가는 당연히 이 국가였다.

module 6. 특강 “문재인 정부의 여성정책”

이선민 박사 (여성학, 숙명여대 초빙대우교수)





☞ 주요 내용

1. 2019, 오늘의 한국
2.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 알아보기
3. 새로운 요구, 들여다보기
4. 성평등 한국을 위하여

**평등을 일
함께하면 현실이 됩니다**

여성가족부

남녀 같은 임금 같은 대우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일 문재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문재인

문재인

20대 국정전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1. 국민주권의 쏠림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module 7. 여성정치리더십 “여성, 정치 앞으로!”

■ 토론 및 학습 내용

- 나는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가? 직위, 직책 즉 자리와 리더십은 어떤 관계인가? 리더십은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가장 스마트한 조직은
'여성이 더 많은 조직'



향후 과제 ;
여성참여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리더십의 문제!



높을 피하라!

한명도 빠지지 말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전!

우리의 목표는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 남녀 함께하는 사회!

이를 위하여 남녀동등한 정치참여 반드시 이루어낼 것!

■ 기대 효과

1.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리더인가? 리더와 권한자, 리더십과 권한을 구분할 수 있다.
2. 정치지도자로서 모범이 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운다.
3. 여성정치인으로 민주공화의 원칙을 실현할 정치 리더십 비전을 수립한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매우 다르다. 매우 매우 다르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 차이는 리더십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 차이가 과대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일반화는 오히려 리더가 되고자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은 학습의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리더의 역할 수행을 위한 남다른 리더십을 위한 준비가 먼저다. 리더십의 성 차이를 인정하되, 틀에 박힌 전통적 방식이 아닌, 내가 지닌 리더십 가능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핵심어: 공식적 권한과 리더십, 여성과 정치리더십, 여성과 권력, 정치리더십비전

=====

■ 핵심 체크

☞ <여성 할당제와 그저 그런(mediocre) 남성들의 위기>

런던 정경대학의 티머시 베슬리 교수와 공저자들은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1993년 여성 후보 할당제가 시행된 뒤 스웨덴 정치인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했다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the Mediocre Man: 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저자들은 스웨덴 정부가 집계한 소득과 직업에 관한 매우 자세한 데이터를 샅샅이 살폈다. 특히 스웨덴 남성은 군 복무 전에 IQ 검사를 받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리더십 점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여성 후보 할당제가 도입되기 전 후 남성 정치인의 IQ와 리더십 점수 등 능력치를 비교했더니, 대체로 능력치가 낮은 남성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권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 할당제와 그저 그런(mediocre) 남성들의 위기>라는 논문 제목이 시사하듯, 여성 정치인이 대거 등장하며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능력 있는 정치인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정치권에서 밀려난 것이다. ... 결국 능력 있는 여성이 새로 정치권에 진출하고, 능력이 부족했으나 관행에 기대어 정치권에 남아 있던 남성 정치인들이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퇴출당한 덕에 전체 정치인들의 수준은 높아졌다.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73>

☞ 주어진 과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스마트한 팀은 어떤 팀일까?

주어진 과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스마트한 팀은 어떤 팀일까? 이에 대해 Harvard Business Review 6월호에 실린 글에서 3명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답은 '더 많은 여성 more women' 이었다.

What Makes a Team Smarter?> More Women

There's little co-relation between a group's collective intelligence and the IQ's of its individual members. But if a group includes more women, its collective intelligence rises. - HBR, June 2011, pp.32~33.

10세에서 60세까지의 참가자들의 지능을 테스트를 한 후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의사결정, 퍼즐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은 개개 구성원의 지능이 높은 팀이 아닌 여성이 많은 팀이었다. 집단 지성 Group's collective intelligence 이 개인의 지능과 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즉, 조직에 대한 만족도, 구성원간의 응

집력, 동기부여 정도 등이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지능과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능이 높은 팀’보다는 ‘여성이 많은 팀’이 스마트하다는 이야기이다.

팀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구성원의 다양성을 꼽는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한 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다. 여기서 ‘여성’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민감성 social sensitivity 과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태도 open minds 를 가리킨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미리 짐작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대화를 주도해 가는 능력이다. 남이야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야마는 둔감함과 이기심이 아니며, 상대의 말에 귀를 막고 자신의 말만 하는 일방적 말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여성들 (여성 그리고 리더십) 에 대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¹⁾

1984년 언론은 제랄딘 페라로 부통령 후보의 남편이 재무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공격했다. 그녀는 즉각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으로 장시간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모든 장부를 개방하고 쏟아지는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녀는 가족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의 답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야기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대응은 언론으로 하여금 관심을 더욱 상승시키게 했으며 약점을 드러내 그녀와 남편에 대한 기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결코 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미디어가 그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부통령 후보였기 때문이다. 공격의 대상은 후보였던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가 수행하는 후보역할 그 자체였다.

아무리 진흙과 같은 비판으로 공격한다 해도 그것이 꼭 상대에게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사 비판이 따라다닌다 해도 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과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페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찾은 도전은 무엇이며 이 도전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깎아내릴 정도로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했다. 페라로는 여성이었으며 국가의 정치권력 2순위를 추구하

1) 로널드 하이페츠,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리더십 수업, 더난출판. 2013. pp. 394~398.

고 있었다. 이 사실 자체가 미국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핵심적인 도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반응은 모두의 관심을 이슈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페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점을 돌리도록 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한 모든 관심을 중요한 이슈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당연히 우리의 재무 장부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슈는 그게 아니잖아요?”라고 말 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지만 공론 자체가 선거 출마와 연결될 수 있도록 틀을 바꿀 수는 있었다.

미국은 그녀를 여성의 능력과 관점을 대표하는 역할로 보았다. 그녀는 그 역할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그녀는 (...) 자신을 대변하거나 핵 군비 경쟁, 일자리 그리고 교육과 같은 ‘국가적’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권한을 갖춘 여성으로서 여성의 시각이 백악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와 같은 눈앞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캠페인 4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야 그녀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대표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차별에 대한 역사적인 투쟁과 미국의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평등과 공정한 경쟁, 개인의 표현과 같은 미국인들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딸들의 축구팀을 코치하면서 동시에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첫 발걸음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주에서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예산을 운영하면서도 무역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어머니인 동시에 기업의 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가 될 여섯 살 아들과 함께 쿠키를 구우면서도 우리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출마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도약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있는 모든 여성들의 연결고리입니다. 나의 출마는 미국이 평등의 원칙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평등을 이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성들이 리더십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여성들의 주 업무 공간은 가정인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전은 예견과 통찰, 풍부한 상상력 과 판단력,
그리고 종종 건전한 뻔뻔함 으로 구성된다.

비전은 견문이 넓은 열린 마음 에서 비롯된다.

비전은 항상 논리정연한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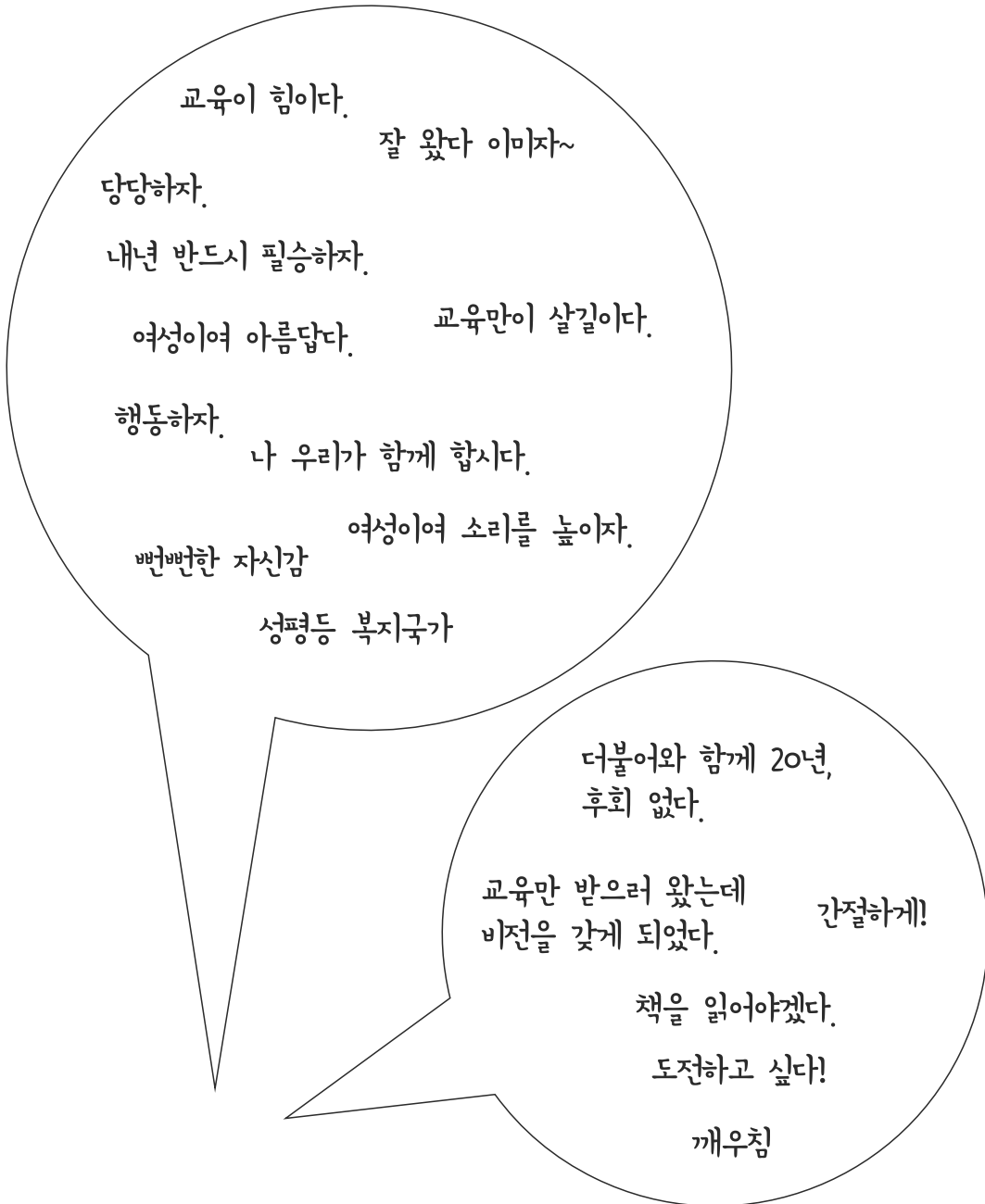
심지어는 장황하고 자기관찰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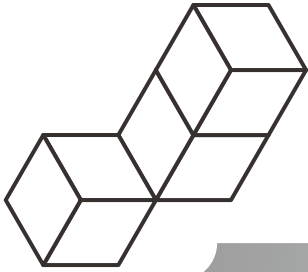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정보, 가치, 프레임워크 그리고 통찰력이다.

여성들이여, 정치 앞으로!

참가자 한 마디

☞ 하루, 그리고 이틀... 14시간, 2일 과정을 모두 마친 소감을 여쭙었습니다.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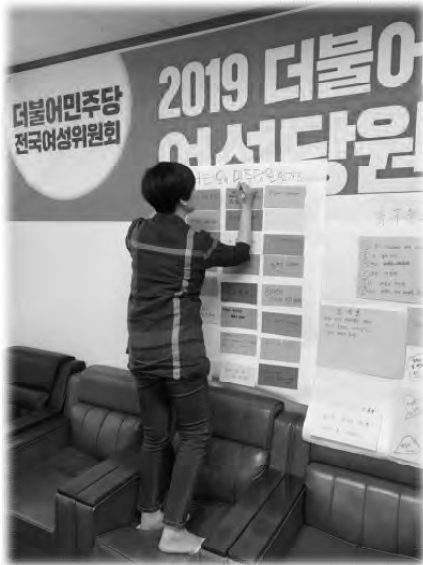
후기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리더십센터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 지역별 전문과정 운영 TF 참여 현황

	지역	일자	장소	부소장	운영위원
1	대구·경북	03.29.(금)~03.30.(토)	엑스코	장숙이	조용미
2	대전시당	04.08.(월)~04.09.(화)	예람인재교육원	김정선 한운옥 송순효	홍성희 박준하
3	충남도당	04.19.(금)~04.20.(토)	천안축구센터	송순효	홍성희
4	경남도당	04.23.(화)~04.24.(수)	경남도당 회의실	정석자 황재은	김미선
5	전북도당	05.27.(월)~05.28.(화)	전주 한성호텔	장숙이	-
6	부산시당	05.31.(금)~06.01.(토)	부산시당 회의실	-	정현진 최주영 홍성희
7	전남도당	06.04.(화)~06.05.(수)	전남도당 회의실	김정선	-
8	광주시당	06.12.(수)~06.13.(목)	광주시당 회의실	김정선 장숙이	정현진
9	세종시당	06.19.(수)~06.20.(목)	세종시 의회 1층	김정선	정현진
10	제주시당	06.25.(화)~06.26.(수)	오드리인호텔	-	최주영
11	서울시당	07.03.(수)~07.04.(목)	중앙당 2층	김정선 장숙이	노경숙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들의 시간을 나누어주신 여성리더십센터의 부소장, 운영위원, 여성국 당직자분들께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12개 지역위원회 민주당원, 당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김은경

<
www.srook.net

사도당 여성위원회 이모저모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11차 서울시당

일시 2019.7.31(수)~(목)
장소 중앙당 2층 414실

여성리더십센터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총평

여성에게 권력을!

대우, 정복, 김나, 홍나, 권동우, 권남, 장주, 재희, 세우, 서은, 유영, 장호의, 154인 여성당원교육 권력과정의 선행인 제막과 관련된 호소 시문이다. 이번 제막회 직장은 2019 총선 승인과 3회 여성총선행태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려면 온 지역여성위원회의 역량 재정립과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었다. 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핵심당원들로 이루어진 44명의 과제 참가자들은 24시간의 격렬한 시간 투자는 물론, 이후 지역위원회 여성당원 역량 강화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떠안은 모습이었다. 했다.

해 민주당원이 345명의 시료에게 공문을 던지려 하니 개척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의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정당들과 주된 차이가 다른지 민주당이 내세우는 차별점이나 핵심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질문의 시간도 가졌다. 민주당이 만들어야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해 필요한 민주당원 학습하고 실천하고 싶은 정책들을 분석하였으며, 해 사료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의사결정과정 참여해야 한다는 의제를 사 회의 장으로 유망한 30여명에게 이후의 시회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 보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은 민주당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여성당원자원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새로운 여당에게 권력을!

김은경
민주당원교육사업팀장/여성당원
총괄책임자

다정다인후담
9

2019년 1월에 부소장 임명을 받고서 시작된 잦은 서울행은 완전한 ‘소화행’임에 분명하였습니다.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우리 여성리더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정당 내에서의 당연한 권리찾기에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전국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여성리더십센터 정기교육으로 자기잡기를 바라 봅니다. 김은경 소장님을 비롯한 부소장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민주당을 향한 열정은 최고였으며, 앞으로 함께 하기에 든든한 민주동지임에 자랑스럽습니다.

정석자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양산시의회 의원 (5대, 7대)

더불어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에서 매월 정기회의를 거쳐 여성당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결정하여 17개시도당으로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을 12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현장에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가 당원으로서 알 권리를 누리는 것 같다” “무엇을 해야할 지 알겠다”등을 목소리를 듣게 되어 리더십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는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기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숙이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사) 지방자치발전소 사무총장,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전) 서대문구 7대 구의원, 예사랑노인복지센터 대표, 경기대사회교육원 전임 강사

더불어 민주당원이 된지 8년이 다 되어가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목표, 사명을 제대로 해
하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 문제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힘
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었다. 이번 여성리더십센터 여성핵심당원교육은 마음만
으로는 절대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의 상황을 바꾼다거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당원으로서의 역할이해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
을 합쳐 한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목표설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운옥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미래교육정책연구소 대표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면서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새로이 만나고,
질문받고, 때때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냥 알고 있던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엄연하게
달랐다. 젠더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일상은 더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 무겁다. 30% 여
성할당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그나마 지켜달라는 요구는 얼마나 후진지, 남녀동수내각과
동수공천이 왜 매번 외침에서 그치는지... 우리 안의 오래된 두려움과 직면하고 답을 찾
는 시간이었다.

허소영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강원도의회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선(문재인후보) 도유세단장, 강원도당 정책실장

여성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무지했음을 인식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성 30% 공천할당제’, 나아가 ‘남녀동수 내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입니다. 구호로 내걸어야 하는 사실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변화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깨어나는 여성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성 정치 앞으로!!

김정선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국립 목포대학교 겸임교수

강의장에 와서 듣고만 가던 교육에서 ‘참가자 스스로 말하고 글로 적어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바뀌었다. 참여했던 교육생들의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는 높았다.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비교해보고 교육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돌아가는 여성당원들의 모습에서 동지들을 모아가는 보람을 느꼈다.

송순호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여성당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여성당원교육 전문 과정”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여성정치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여성당원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정치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여성의 행복을 이끌수 있는 다양한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능력으로 협업하고 연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성들 화이팅입니다!!

김미선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전)19대 대선 경남도당여성위원회 상황실 홍보팀장
현)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경남도당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사남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1. 여성당원으로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존경스럽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히 민주당을 섬겨온 분들이다.
 2.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에 기뻐다. 교육이라면 오히려 편하지만 참여학습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거 보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다양한 방법의 학습관리 필요함을 보았다.
 3. 참여와 연대의 힘을 보았다. 리더십센터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힘은 아카데미에 선한 영향력과 즐거운 진행과정과 좋은 결과물 도출의 에너지가 되었다. 여성당원들이 서로 격려로 참여하였고 또한 학습을 통한 유대관계로 자연스럽게 연대하도록 전국 여성위원회의 연대의 시너지효과를 스스로 발견하고 알게 했다.
 4.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자존감 자신감 찾기의 기회가 됐으며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와 연대의 기쁨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다.
 5. 좋은 리더의 본을 보게 됨으로서 여성리더의 인품과 역할부분에서 희망을 갖게 됐다.
 6. 여성당원교육 전국 투어를 통해 하면 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정현진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한국소통공감동행연구센터 대표
한국퍼실리테이션협동조합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의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은 여성당원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더민주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 더민주의 당원 그것도 여성당원으로서의 우리의 현 위치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육 과정 속에서 공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감동과 기쁨 속에 서로를 보듬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당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이 교육과정이 지속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홍성희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춘천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여성리더십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보낸 올 한해는 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의 열정 여성이 여기에 다 모였구나 싶을 만큼 교육에 몰입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체로도 민주당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여성당원들의 눈빛이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 보며 여성당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서 즐겁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통처럼 이어져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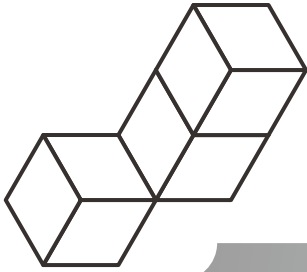
조용미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전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진해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20년 당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내가 모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당원활동 20년 만에 참여하게 된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당원들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깨우고 다듬어가는 여성리더십센터의 전문과정은 내가 민주당원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훌륭한 여성당원들을 발굴하여 보석으로 다듬어가는 장을 열어가는 교육, 민주당의 미래와 여성리더들의 당찬 포부...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다. 바리바리 교육 자료를 들고 메고 40만 여성당원을 만나러 전국을 다니는 김은경 소장님, 8분의 부소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한분 한분의 넘치는 열정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경숙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더불어민주당

강령, 당헌·당규 (여성조직관련 조항)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과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이후 열린 민주화시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중심의 정치, 국가중심의 국가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도정치와 시민사회가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개발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정경유착과 도덕적 헤일로 1997년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사조에 매몰된 성장신화는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연결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및 사회불평 등의 증대로 인한 차별과 격차 심화, 서민경제의 파탄과 중산층의 붕괴, 사회갈등의 분출과 불안한 생애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와 개인 모두의 불안 해소가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개발과 입법과정을 통해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천재지변을 포함, 범죄와 재난·사고, 환경문제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의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극복해 나간다.

넷째,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하도록 적극 육성·지원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한다.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통일을 위한 남북 간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6. 공보국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등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전국위원회

제28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4. 전국대학생위원회
5. 전국장애인위원회
6. 전국노동위원회
7. 전국농어민위원회
8.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9. 사회적경제위원회

제29조(전국위원장·부위원장) ① 전국위원장은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전국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위원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명 또는 선임된 전국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전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전국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9.3.8.>

⑤ 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신청이 없을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⑦ 전국위원장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 제4호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전국여성위원회) ① 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③ 전국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④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2. 시·도당여성위원장
3. 여성 국회의원
4. 여성 최고위원
5. 여성 지역위원장 <신설 2019.3.8.>
6.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7.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장 <신설 2019.3.8.>
8.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표 2명

9.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운영위원

⑤ 전국여성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여성리더십센터)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성리더십센터를 설치한다.

② 여성리더십센터에는 소장 및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두고,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여성리더십센터의 소장, 부소장 및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2조(여성지방의원협의회)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교육 및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여성지방의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지방의원협의회에는 상임대표 2명 및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두고, 필요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부대표 및 임원은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의2(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①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조직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33조(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① 노인조직의 확대와 노인정책의 수립, 기타 노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노인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개정 2019.3.8.>

③ 전국노인위원회 아래에 주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업무) 인재영입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인재영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9조(소집 및 의사) ①인재영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7절 여성정치참여확대기구

제70조(명칭) 당헌 제8조에 따라 중앙당에 설치하는 특별기구의 명칭은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라 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1조(구성) ①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2조(위원장) ①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3조(업무) ①본 위원회는 각급 공직 선거의 여성후보 발굴, 인재영입, 전략수립,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위원회 업무지원은 여성국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74조(소집 및 의사) ①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3.8.]

제8절 사무처

제75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고 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집행을 통할한다.

②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법률위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대표는 제1사무부총장, 제2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수석, 조직, 미래 등으로 관장 업무를 정하거나 그 명칭을 달리 칭할 수 있다.

④사무부총장 중의 1명은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구축 등 정당현대화와 미래업무의 기획 및 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⑤사무총장 업무 보좌 및 기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사무총장실을 두고, 약간 명의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제76조(당무집행회의) ①당무집행회의는 당무 관련 사항을 조정·협의·처리하며,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당무집행회의는 주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당무집행회의에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산하 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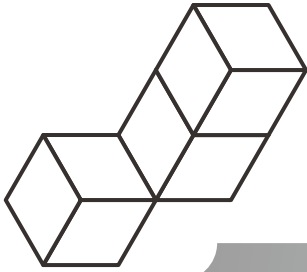
④당무집행회의에는 각 실·국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집행회의가 정할 수 있다.

제77조(사무직당직자) ①중앙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당직자를 둔다.

②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당 소속 국회직은 당헌 제39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③제2항의 국회정책연구위원은 당헌 제39조제3항의 사무직당직자 중 국장급 및 부국장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별첨

-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
- 여권통문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PAR

OLYMPE DE GOUGES

SUIVI DE

FORME DU CONTRAT SOCIAL DE
L'HOMME ET DE LA FEMME



LA RÉPUBLIQUE DES LETTRES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Olympe de Gouges (1748~1793),
rédactrice de la Déclaration.

- 전문 -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그리고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국민의회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여성들은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여성의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항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여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과 남성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 유익한 도덕,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출산의 고통 중에 보여지는 용기에서와 같이 미에서 우등한 여성은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아래 다음과 같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여성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나며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특히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이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다름 아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여성의 자연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영구적인 남성의 폭정이다. 이러한 제한은 자연과 이성의 법률에 의해 개혁되어야 한다.

제5조. 자연과 이성의 법은 사회에 해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현명하고 신성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만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어떤 여성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에 복종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일단 어떤 여성이든 유죄로 선고되면, 완전한 엄격함이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기본적 의견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선 안된다. 여성은 교수대에 오를 권리를 가졌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연단에 오를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1조. 자유로 인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여성 시민이든 진실을 숨기려는 야만적인 편견에 강요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주요한 이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 공공의 무력과 행정 비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기여는 평등하다. 여성은 모든 의무와 모든 힘든 임무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은 지위, 고용, 직무, 명예와 직업의 배분에서 똑같은 몫을 공유해야 한다.

제14조. 여성과 남성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를 통해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여성이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그 액수, 근거, 징수,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등한 공유를 보장받아야만 적용될 수 있다.

제15조. 전체 남성을 목적으로 한 세금에 참가하는 전체 여성은 어떤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헌법은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다수가 그 기초에 함께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제17조. 재산은 함께 있거나 헤어졌거나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속한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그것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 후 문 -

여성이며, 깨어나라. 이성의 종소리가 전 우주에서 들려오고 있다. 당신의 권리를 발견하라. 강력한 자연의 왕국은 더 이상 편견과 광신과 미신과 거짓말에 싸여있지 않다. 진실의 불꽃이 어리석음과 권리 침해의 모든 구름을 쫓아버렸다. 노예화된 남성은 자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여성의 사슬을 수단으로 하는 힘과 필요를 늘려왔다. 남성은 자유로워지자 그 동료에게 불공평했다. 오, 여성이며, 여성이며! 언제가 돼야 눈을 뜰 것인가? 혁명에서 여성은 무슨 이익을 얻었던가? 더욱 분명한 멸시와 더욱 두드러진 경멸이다. (이하 생략)

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 이름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했다.

□ 개요

○ 작성일: 1898년 9월 1일

○ 작성 장소: 현재까지 알 수 없음

○ 작성자: 북촌(現 서울 종로구) 출신의 이소사와 김소사

○ 신문게재: 전문『황성신문』(1898.9.8.), 『독립신문』(1898.9.9.),
발취문 『제국신문』(1898.9.6), 독립신문 영자신문(1898.9.10.)

○ 여권통문 관련 장소: 입증가능 자료(문헌자료, 지적도, 토지대장 등)에 기초할 때, 홍문
섯골 사립소학교 자리(한성부 남서 대평방 홍문동계 홍문동 8통
1호, 현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29)

○ 내용

-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권);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 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직업권);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光武二年三月八日 星期一 第... 號

第... 號 第一 卷 行

皇城新聞

光武二年三月八日 星期一 第... 號

別報

○(五百年有) 萬壽宮
 던너 유공적 유상
 분이 기명상에 유
 기송아 내관교를
 성시 송라는 유공
 이었기로 송도 송
 남고 성기 송아 우
 리 온성을 재각 송
 고래에 기의 송노
 라

홍적치로 만기를 출찰 하시니 어찌
 우리 아첨만 동포 열매가 성의를
 표출하여 전일 허니는 형상은 명성
 부리고 악과 기명호 선식을 출현호
 석소스이 취서되어 명신 무형신공
 을 사송아다 현할 거서어는 영지하아
 열할 기명호 불명형신 호양으로 구송
 에만 빠서 있는 노이거시 한심현 열
 이로다 후차 아목구비와 소지오관 류
 해가 남네가 다름이 있는가 영지하아
 혁신호양으로 사나회의 버려 주는 것
 만 안의되고 평일을 삼가에 취하하
 의 절제안 받으리오시와에 우리오다
 온저 불명기 회신 나라들은 보면 남
 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어리서드리 각
 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비
 호아 이목을 널리 장성한 후에 사나
 회와 부부지 의을 결하여 평생을 살
 데리도 그 사나회의에 밀호도 압제를
 받지 아니하고 후대함을 밋음은 다름
 아니라 그 발문과 지식의 사나회의 못
 지 아니하고 권리도 현반이나 영지
 아를 받지 아니하리오 송도다 전일
 을 성취하면 사나회가 허락으로 너편
 비를 압제하리고 한가 내들을 밋자라
 아 말하리 너조는 압제 앞서 받은 알
 하지 말며 송과 비를 지우어 영지하아
 하느니라 영지하아 송의 유공이 사나

官報

●官廷雜事 中樞院一等議官全在假
 辭職 批旨省政其委宜官自在何必爲
 引勿許行公(前)河渠全獲濟等語氣說
 批旨省政其委時措有古今之殊治具有說
 公之與爾等之言太相齟突(北)青蓮士全
 學海堂(官)事續 批旨省政其委此非謂卜
 韓廷(承)命該道臣限從公禮應(前)主事
 姜熙朝(官)事續 批旨省政其委所陳有可
 採奏(六)品李晉(官)事續 批旨省政其
 惡附(官)亦(夫) 以上九月五日



2019년 여성당원교육 전문과정 보고서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리더십센터